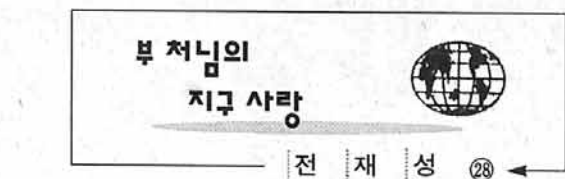


미래 경제체제 바꿀 새 동력

태양에너지

부처님은 상어아함에서 "갓싸매어, 올바른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올바른 법의 번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갓싸매어, 올바른 법의 번고가 세상에 나타나면 그때에는 올바른 법의 소멸이 초래된다. 갓싸매어, 법의 요소가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불의 오염의 책임은 자연의 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불의 사용에 있다. 지구의 온난화는 재생가능하지 않으며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의 대량사용에서 근원한다. 화석연료 에너지체에서 방출되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지구 생물권 역량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석유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보다 훨씬 크리라 예상된다. 거의 60억톤의 탄소가 매년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 가스로서 대기권에 계속 축적되어 지구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소방출량이 줄지 않으면 지구기온의 급격한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핵에너지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의 한계 때문에 결코 불에너지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핵 동력의 확장속도는 둔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중단 상태에 처해있다. 과학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원자로는 40년대에 못쓰게 될 것이며 대부분 핵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연의 불인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근원적 에너지이다. 앞으로 태양에너지의 직접전환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체제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다. 태양광선은 이용가능한 양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앞으로 수십년내에 물을



태양집광관을 통해 전기생산도 이제는 재래식 방식의 화석연료나 핵에너지를 통한 전량 생산방식에 비추어 경쟁력을 갖추만큼 성장해가고 있다. 그밖에 재생가능한 모든 에너지-풍력, 수력, 생물체에너지-들은 끝없는 유동속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계속 재충전 되고 있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자연의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양의 불어아함로 태고적부터 모든 생명체를 낳고 키워온 청정한 무공해의 불이다. 인류의 앞날은 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냉온방 체계·전기 생산까지 가능 생명체 낳아 성장시킨 '자연의 불'

세계 전제로 불 때에 현재의 화석 및 핵에너지 사용량의 1/2만을 사용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재생가능한 지속적 에너지원의 경우 무한대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이다. 진정한 자

이스라엘, 요르단에서도 이미 태양집광관을 이용하여 가정용 물 25% 내지 65%를 데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1백만개가 넘는 직립식 태양시스템과 25만개가 넘는 간접적 태양열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개선된 태양집광관으로 물은 200℃까지 달할 수 있어 많은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운달을 앞둔 지난달에는 결혼식을 서둘러 하려는 예비부부들이 봄바 사적인 문제가 됐다. '운달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풍속 때문에 지난달에는 예비식장 수용능력을 25배나 초과하여 교회 성당 할것 없이 심각한 예식장을 초래했었다. 반면 결혼식장으로 활용되고있는 사찰은 이런 세태와는 거리가 먼 한산함을 보여줬다. 이는 사찰이 영가를 모시는곳 이상으로 관혼상제의 불교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불자들부터 스스로 불교적 관혼상제를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강도높게 일고있다.

최근 몇몇사찰이 사찰공간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추세와 화장장습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佛法따라

'차분하고 경건' 장ძ... 불자부터 실천을

불교적 관혼상제의 정착은 포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각 사찰계도와 불자 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수 요건이다.

절에서 하는 결혼은 '재혼 할 때 남몰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단순한 생각과 관례가 적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거나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 봉은사등 결혼식장으로 개방되고 있는 사찰에서의 결혼식은 평생의 반려자를 부처님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므로 해서 경건함이 지속될 시간도 흘러도 오 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결혼식을 사찰에서 올린 불자의 의견이다.

또 사찰에서의 결혼식은 촉박한 일반예식장의 예식 시간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경비를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 화장제도도 국토의 묘지화가 한 해에 서울의 여의도 크기만큼 잠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차원으로 권장되고 있음에도 아직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래의 미풍양속을 지켜가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불교식 관혼상제를 불자들부터 스스로 앞장서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교식 전통을 프로그램화하고 의식을 현대적으로 바꿔 토론회와 캠페인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아들에게 많은 불자들의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진법장사는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있으나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각종 위문품을 접수, 국군장병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02)932-2333

1면 칼럼 '목어'는 기 사법처 합니다.



중국 동황지역에 있는 베제크릭선물동. 서화통해 불심 영글게 영남불교대 문화교실

청국 윤의중선생을 초청해 매주 목·토·일 각 1일씩 꽃꽂이, 사군자 및 한국화교실을 개최한다. 소매를 타고 들어오는 서늘한 기운이 사색적이게 하는 가을, 한아름의 소곡(小菊)에 쪽 파묻혀 꽃꽂이를 하고 사군자와 한국화를 통해 근자의 기

품과 한국의 얼을 느껴보는 것도 뜻깊은 시간을 만드는 일이다. 목향 가득한 법당에서 가을을 느껴보자. 꽃꽂이는 무료이며 사군자와 한국화는 화비가 각 1만원과 2만원. (053)475-3706

해초스님 발자취를 따라 실법연 실크로드 순례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신라 해초스님과 당나라 삼장법사. 오로지 정각을 이루겠다는 구도의 정열을 사막위에서 불태웠던 고승들의 체취를 느껴 보자. 실법연구원에서는 오는 11월

전법과 화합의 근본도량으로서 근대한국불교의 1번지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조계사. 조계사는 80여년전 한운운, 만공스님 등에 의해 창건되고 1936년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총본산이 되면서 각황사를 현재의 자리로 옮겨 태고사로 고치고 대웅전을 건립했다. 또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계사로 개칭하고 본격적인 전법과 구도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신행수첩

가슴 시원한 깨침의 여독 한국불교연 전통경 강의

1일~5일 4박5일의 일정으로 수많은 인도구법승들의 발자취를 좇아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떠난다. 고대 동서양 문물교류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사막 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전해내려온 불교미술의 보고 돈황석굴 순례를 통해 고대동방문화의 모든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법연구원서 접수한다. (02)720-0824

사부대중 화합축제 한마당 조계사 육화제, 놀이마당·운동회 열어

이렇게 2천만 불교도의 귀의처이며 안식처인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사부대중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육화제를 오는 15일 재동국인학교에서 개최한다. 육화(六和)란 인격과 사상 그리고 협동체를 이루고 균등한 복지를 지향하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다. 이번 육화제는 스님은 물론 각 신행단체들이 모두 참석 범위, 놀이마당, 화합운동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02)732-2115

호국장병에 불심전하자 무진법장사 위문품 접수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그럴만한 경정이 없거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보겠다는 동기부여가 없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군부자들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무진법장사(주지 법장)가 오는 16일 이런 군부자들과 군부자는 아니더라도 국로병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찾아 57사단으로

이미 수많은 불자가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한분모시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1. 무분시대의 부처님. 이시대의 부처님이신 대원본존지장보살마하살님을 가정에모셔놓으시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마음을 닦지않으시렵니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본원을 세운 대성지장보살을 이미 전국삼만불자가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혼신의 힘과 심혈을 다하여 제작된 백자(도자기)지장보살존상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따질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오며 이시대 최고의 예술품이오니 한분씩 모셔놓고 기도하시면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무량공덕을 필히 얻으실 것이오니 불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2. 사찰에서도 원불로 모실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원불로 모셨습니다.)
3.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백자에 순금으로 대전신홍사의 묘허스님(혜원)께서 친히쓰신 도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입상 • 25cm×30cm×33cm 지장보살좌상 • 25cm×30cm×33cm • 45cm×143cm

1. 장식장 포함됩니다.
2. 구입방법 본사: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경남지점: 경남불교용품판매전시장 TEL: 0551-95-8911~2
3. 가격: 지장보살입상.....200,000원
지장보살좌상.....180,000원
해연선사발원문.....500,000원
반야심경.....300,000원

京畿道 安山市 仙浮洞 1038-13 (佛音般若) TEL: 0345-413-4647~8

全 斗 漢 合 掌